

##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

##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명동예술극장-유네스코회관-옛 수도국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채신기념관 원서공원

##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 11 손창섭의 길

회현동 은행나무-남산오르미-회현시민아파트-호현당-남산도서관

##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학로-한무숙문학관

## 13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 코스 순서

- ① 교보 앞 집터
- ② 낙원동 책방 마리서사터
- ③ 원서동 집터
- ④ 고희동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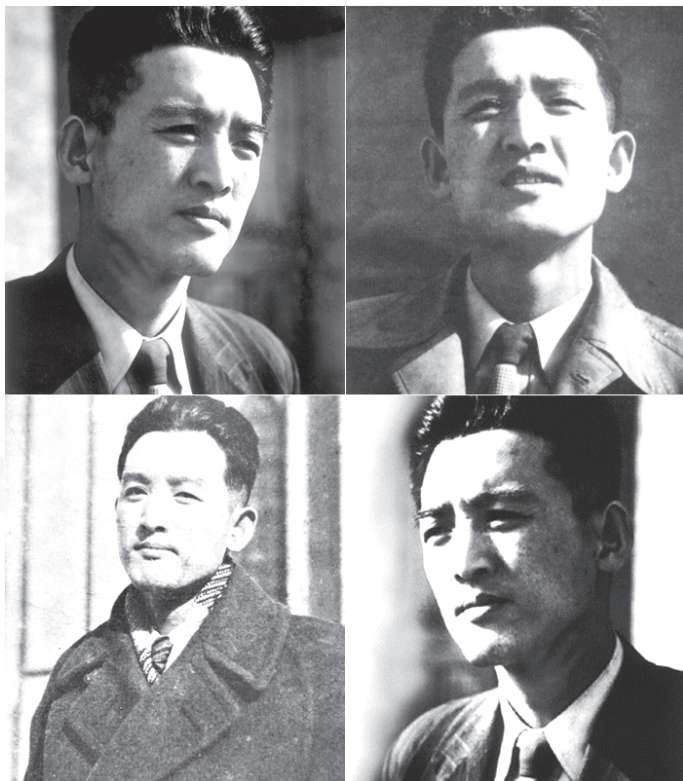


##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의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원룸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우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명동예술극장-유네스코회관-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채신기념관 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회현동 은행나무-남산오르마-회현시민아파트-호현당-남산도서관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화로-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 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작가 소개 및 연보



▶ 1926년(1세)

8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59번지에서 아버지 박광선(朴光善)과 어머니 함숙형(咸淑亨) 사이에서 4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남. 본관은 밀양(密陽).

▶ 1933년(8세)

인제 공립보통학교 입학. 먼 길을 걸어 면소지에 있는 학교에 다님.

▶ 1936년(11세)

서울로 이사.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종로구 원서동 134번지로 이사.  
덕수공립보통학교 4학년 편입함.

강원도 인제공립보통학교에서 서울 덕수공립보통학교 4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할 때까지  
살던 집(종로구 원서동 134번지)



▶ 1939년(14세)

3월 18일 덕수공립보통학교 졸업. 4월 2일 5년제 경기공립중학교 입학. 학업보다 영화,  
문학 등에 심취함.



▶ 1940년(15세)

종로구 원서동 215번지로 이사.

▶ 1941년(16세)

3월 16일 자로 경기공립중학교 자퇴. 한성중학교 야간부에 다님.

▶ 1942년(17세)

아버지의 친지가 있는 황해도 재령으로 가 기독교 재단의 명신중학교 4학년에 편입함.

▶ 1944년(19세)

명신중학교 졸업하고 관립 평양의학전문학교(3년제) 입학. 1944년 일제강점기 당시 의과, 이공과, 농수산과 전공자들은 징병에서 제외되는 상황.

▶ 1945년(20세)

8·15광복. 학교를 그만두고 상경. 아버지를 설득하여 3만원을 얻고, 작은 이모에게 2만 원을 얻어 종로3가 2번지 낙원동 입구(현 탑골공원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서점 <마리서사(茉莉書舍)> 개업. 초현실주의 화가 박일영(朴一英)의 도움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서점 꾸밈. 많은 문인들이 교류하는 장소가 됨.

▶ 1946년(21세)

12월, 『국제신보』의 주간으로 있던 송지영의 추천으로 시작품 「거리」 발표.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함.

▶ 1948년(22세)

입춘을 전후하여 ‘마리서사’ 폐업.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임호권 등과 함께 동인지 『신시론(新詩論)』 제1집 발간. 4월 덕수궁에서 1살 연하의 문학소녀 이정숙(李丁淑)과 결혼. 결혼 후 종로구 세종로 135번지(현 교보빌딩 뒤)의 처가에서 거주함. 겨울 무렵 『자유신문』문화부 기자로 취직. 12월 8일 장남 세형(世馨) 출생.



▶ 1949년(24세)

4월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 등과 함께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도시문화사) 발간. 『신시론』 제2집에 해당되는데 김병욱, 김경희는 가담하지 않음. 7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됨. 『경향신문』 입사. 기존의 동인 구성원 중 김수영, 양병식, 임호권이 빠지고 이한직, 조향, 이상로, 김규동 등이 새롭게 가담한 ‘후반기(後半紀)’ 결성.

▶ 1950년(25세)

한국전쟁 일어남. 피난을 가지 못하고 928수복 때까지 지하생활. 9월 25일 딸 세화(世華) 출생. 12월 8일 가족과 함께 대구로 피난. 종군기자로 활동.

▶ 1951년(26세)

5월 육군 소속 종군 작가단에 참여. 10월 하순 『경향신문』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가자 함께 이주. 부산 광복동 골목에 두 평짜리 방을 얻어 피난생활. 처삼촌 이순용(전시 중 내무부 장관)의 도움을 많이 받음.

▶ 1952년(27세)

『경향신문』 퇴사. 6월 16일 「주간국제」의 편집장을 맡고 있던 이진섭의 배려로 ‘후반기 문예 특집’이 마련되어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이라는 평론 게재. 대한해운공사에 취직.

▶ 1953년(28세)

3월 ‘후반기’ 동인들과 함께 이상(李箱) 추모의 밤 열고 시낭송회 가짐. 여름 무렵 ‘후반기’ 동인 해체 결정. 박인환은 끝까지 해체 반대함. 5월 31일 차남 세곤(世崑) 출생. 7월 휴전협정이 타결되자 중순경 서울 집으로 돌아옴. 김규동, 이봉래, 이진섭, 오종식, 허백년, 유두연 등을 구성원으로 ‘영화평론가협회’ 발족.

▶ 1955년(30세)

3월 5일 대한해운공사의 상선 ‘남해호’를 타고 미국 여행. 3월 5일 부산항 출발. 3월 6일 일본 고베항 기항. 3월 22일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항 도착. 4월 10일 즈음 귀국. 귀국한 후 『조선일보』(5월 13, 17일)에 「19일간의 아메리카」 기고. 대한해운공사 사직. 10월 15일 『선시집』(산호장) 발간. 아시아재단에서 제정한 ‘자유문학상’ 후보에 오름.



▶ 1956년(31세)

3월 17일 '이상 추모의 밤' 열림. 이후 3일 연이은 폭음. 오후 9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9월 19일 문우들의 정성으로 망우리 묘소에 시비 세워짐.

▶ 1976년(20주기)

만아들 세형에 의해 시집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출간

▶ 1982년(26주기)

김규동, 김경린 등에 의한 추모 문집 『세월이 가면』 출간.

▶ 1986년(30주기)

『박인환 전집』(문학세계사) 출간.

▶ 2000년(44주기)

박인환의 고향인 강원도 인제군청과 인제군에서 활동하는 '내린문학회' 및 시전문지 『시현실』 공동주관으로 '박인환문학상' 제정.

▶ 2005년(49주기)

『한국대표시인 101인선집-박인환』(문학사상사) 출간.

▶ 2006년(50주기)

문승묵에 의해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박인환 전집』(예옥), 맹문재에 의해 『박인환 깊이 읽기』(서정시학) 출간.

▶ 2008년(52주기)

맹문재에 의해 『박인환 전집』(실천문학사) 출간.

▶ 2012년(56주기)

강원도 인제군에 박인환문학관 개관



▶ 2018년(60주기)

김다언에 의해 『박인환,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보고서) 출간.



▶ 책방 마리서사(茉莉書舍)를 찾아서



1947년 3월 마리서사 앞에서 시인 임호권(왼쪽)과 함께

마리서사는 박인환 시인이 1945년 8·15해방이 되자 평양의학전문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차린 서점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해방이 된 해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남짓 경영하다가 1948년(22세) 입춘을 전후해 문을 닫았습니다.

박인환은 아버지한테 3만 원을 얻고 이모한테 2만 원을 얻어 종로3가 2번지, 즉 낙원동 입구에 서점을 차렸습니다. 그 옆에는 이모부의 포목점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마리서사」라는 산문에서 그 위치를 “낙원동 골목에서 동대문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요즘에는 공립약방이라나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박인환이 서점을 차린 가장 큰 이유는 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시를 쓰기 위한 것이었죠. 그가 시와 영화 등에 빠져 경기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한 사실을 보면 이와 같은 면은 충분히 유추됩니다.



양병식 시인의 회고에 따르면 마리서사에는 마치 외국 서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앙드레 브르통의 책, 폴 엘뤼아르의 시집, 마리 로랑생 시집, 콕토 시집, 일본 고오세이가꾸에서 나온 『현대의 예술과 비평』 총서, 하루야마 유키오가 편찬한 『시와 시론』, 가마쿠라 문고에서 나온 『세계 문화』, 일본의 유명한 시잡지인 『오르페온』, 『판테온』, 『신영토』, 『황지』 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sup>3)</sup> 박인환이 소장하고 있던 장서들을 내다 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책을 좋아했던 것이죠.

박인환 시인이 마리서사를 차린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서점을 차린 때는 스무 살로 한창 새로운 사상과 문물에 관심을 가질 나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인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배웠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인환이가 제일 기분을 낸 때가 그때였고, 그가 죽은 뒤에도 살아 있을 동안에도 나는 그 책가게를 빼놓고는 인환이나 인환의 시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한 것을 보면 박인환의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4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올린 이정숙(李丁淑)과의 결혼식. 김경린·김광균·양병식 시인, 박영준·이봉구 소설가, 이진섭 극작가, 송지영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마리서사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길영주(화가), 김광균, 김기림, 김병욱, 김수영, 박영준, 박일영, 배인철, 설정식, 송기태, 송지영, 양병식, 오장환, 이봉구, 이시우, 이한직, 이흠, 임호권, 조우식, 최재덕(화가) 등이었습니다. 물론 뒷날 부인이 된 이정숙 여사도 빼놓을 수 없죠. 이정숙과는 1948년 4월에 결혼해 세형, 세화, 세곤 등 두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박인환은 그들과 어울려 시와 예술을 논하고 동인을 구상하고 마침내 시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서사에 드나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는 박일영(朴一英)이었습니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가로 마리서사의 간판부터 내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정숙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박일영은 임호권 시인의 동네인 재동 근처에 살았는데, 화가로서 입신하기보다는 영화관의 광고 간판을 그리며 살아갔습니다. 박인환보다 대어섯 살 위였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아내인 김현경 여사의 증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박일영의 본명은 박준경이었고 사람들이 ‘복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복상이란 일본말로 박씨라는 뜻입니다. 그는 종로3가 쪽 와룡동에서 살았는데 몸이 약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극장의 간판을 그리거나 무대 장치를 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박인환이나 김수영은 박일영과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그가 예술가로서 철저한 은자(隱者)였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박일영은 단순히 간판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콧토, 자코브, 도고 세이지, 브루통, 트리스탄 차라 등 전위 시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인환이 모더니즘의 세계에 눈뜨는 데 도움을 주었고, 김수영에게는 예술가의 양심과 세상의 허위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마리서사에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김수영 시인 역시 주목됩니다. 김수영은 자신의 헌책을 팔려고 그곳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러는 동안 박인환을 통해 미기시 세츠코, 안자이 후유에, 기타조노 가츠에, 곤도 아즈마같이 난해한 시를 쓰는 일본의 시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인환의 습작시들을 의무적(?)으로 읽어보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박인환이 일본말이 서툰데 조선말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식물, 동물, 기계, 정치, 경제, 수학, 철학, 천문학, 종교 분야에 사용하는 언어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활용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김수영이 4·19혁명 이후 시어를 주체적이면서도 폭넓게 사용한 데는 이렇듯 박인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점의 이름이 ‘마리서사(茉莉書舍)’인 데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수영 시인이 「마리서사」라는 산문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모더니즘 시인인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1898~1965)의 첫 시집 『군함말리(軍艦茉莉)』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인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안자이 후유에는 1929년 시집을 간행했는데, 『군함말리(軍艦茉莉)』의 발음이 ‘군칸마리’였기 때문에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는 박인환 시인의 아내인 이정숙 여사가 증언한 것으로 프랑스의 화가이자 시인인 마리 로랑생(Marie Laurencin, 1883~1956)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이정숙 여사는 박인환 시인이 마리 로랑생을 좋아해 그녀의 이름을 서점에 붙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리 로랑생은 프랑스 모더니즘 시의 선구자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9)의 연인으로 자유로운 상상력과 감정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마리 로랑생과 아폴리네르는 서로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견해 중에서 마리 로랑생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쪽이 보다 설득력을 갖습니다. 우선 이정숙 여사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서사를 배경으로 임호권 시인과 찍은 사진을 보면 서점의 출입문 유리에 붙여 쓴 광고들이 많이 붙은 것으로 보아 마리 로랑생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인환 시인은 마리 로랑생 같은 여성을 자신의 시세계에 영감을 주는 연인이자 이상향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박인환이 ‘마리’의 한자 표기를 고민하다가 『군함말리』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인 박일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주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견해 모두 마리서사의 이름을 짓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서사가 한국 문단사 혹은 한국 문학사에 남긴 의의는 김수영 시인의 진단에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마리서사를 빌려서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좌우의 구별이 없던, 몽마르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만 해도 글 쓰는 사람과 예술하는 사람들과 저널리스트들과 그 밖의 레이맨들이 인간성을 중심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문명(文明)이 있는 소설가 아무개보다는 복쌈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더 무게를 가졌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광균 시인이 회고한 대로 마리서사는 20평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서점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습니다. 마리서사에 모여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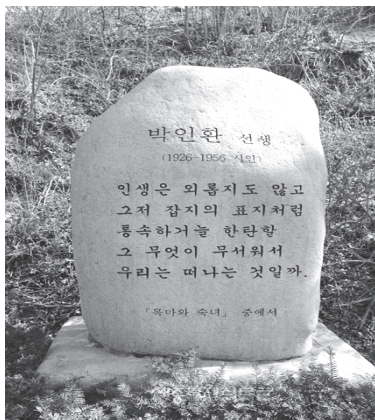
사람들은 책을 사거나 파는 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문학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서사는 그들이 모여 예술을 이야기하며 노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만남이 있었기에 좌우의 이념 대립이 격화되던 시대에도 정치에 함몰되지 않는 예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리서사는 해방기의 모더니즘 시 운동을 낳은 아지트였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마리서사를 폐업하고 나서 곧바로 김경희, 김경린, 김병욱, 임호권 등과 함께 『신시론』 제1집을 간행했습니다. 이전 시대의 모더니즘 시 운동이 김기림 등에 의해 개별적인 차원에서 추구된 것에 비해 ‘신시론’ 동인은 보다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방기 이후 모더니즘 시 운동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의 간행은 물론 ‘후반기’ 동인의 활동이 그 산물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리서사의 주인인 박인환 시인이 있었습니다. (맹문재 서울 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2016년)





## ▶ 작품 세계



망우리에 있는 시비의 앞과 뒤

## 모던한 리얼리즘의 시 세계

지금까지 박인환은 1946년 12월 『국제신보』에 「거리」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정답처럼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제신문』의 전신인 『국제신보』는 1947년 9월 1일 『산업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국제신보』는 1950년 8월 19일 바꾼 제호이다. 『산업신문』의 창업주인 김형두(金炯斗) 씨는 해방 후 창간된 『민주중보』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이었었는데, 1946년 10월 폭동사건에 관한 필화 책임으로 언론계를 떠났다가 자신의 뜻에 맞는 신문을 간행하려고 『수산신문』을 인수하고 『동아산업신보』를 병합해 『산업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한국 신문 백년』(한국신문연구소, 1975)에 따르면 또 다른 『국제신문』이 있기도 하다. 1948년 7월 21일 정무묵(鄭武默) 씨가 『민보(民報)』의 판권을 인수해서 발행한 신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1949년 3월 4일 「경북 폭동 사건에

경북지사 가담」 기사로 필화를 입어 같은 해 3월 3일 폐간당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박인환의 등단 연도, 등단 매체, 등단 작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거리」를 등단작으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1946년에 존재하지 않은 『국제신보』를 등단 매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 정확하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은 박인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박인환은 평양에서 하던 의과대학 공부를 그만두고 상경하여 개업한 ‘마리서사(茉莉書舍)’를 거점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시인 활동을 한다. 1948년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임호권과 함께 동인지 『신시론』을 발간했고, 1949년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과 함께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함창』을 발간했다. 또한 1949년에는 김경린, 김규동, 조향, 김차영, 임호권, 이봉래 등과 ‘후반기(後半紀)’ 동인을 결성했다.

박인환이 1926년 8월 15일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 1956년 3월 20일 31살의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남긴 작품 수는 총 173편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필자가 발굴한 바에 따르면 시 83편, 산문 76편, 번역 시 1편, 번역소설 6편, 서간 13편이다. 혼란한 정국과 한국전쟁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55년 10월 15일 간행된 첫 시집 『선시집』(산호장)

박인환은 문단에 나온 1946년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 13편과 산문 13편 등 총 26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시작품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 1) 「인천항」(『신조선』, 1947. 4.)
- 2) 「남풍」(『신천지』, 1947. 7.)
- 3) 「사랑의 Parabola」(『새한민보』, 1947. 10.)
- 4)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세계일보』, 1948. 1. 1.)
- 5)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신천지』, 1948. 5.)
- 6) 「지하실」(『민성』, 1948. 3.)
- 7) 「고르키의 달밤」(『신시론』, 1948. 4.)
- 8) 「언덕」(『자유신문』, 1948. 11. 25.)
- 9) 「전원시초」(『부인』, 1948. 12. 15.)
- 10) 「열차」(『개벽』, 1949. 3.)
- 11) 「정신의 행방을 찾아」(『민성』, 1949. 3.)
- 12) 「1950년의 만가」(『경향신문』, 1950. 5. 16.)

작품을 발표한 시기는 1948년이 가장 많고, 주요 발표 지면은 『신천지』 및 『민성』이었다. 「인천항」, 「남풍」, 「지하실」,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는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도 수록했다. 이 시집은 모더니즘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박인환의 작품 자체는 모더니즘의 경향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해방기의 혼란한 상황을 담았다. 새로운 시 형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적극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따라서 박인환의 시가 모더니즘 시라든가, 그에 따라 사회 참여 의식이 없다고 평가되어온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박인환은 1950년대의 그 어떠한 시인보다도 현실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나는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 속에서 시민 정신에 이반된 언어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에는 지금은 증오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난날 노래하였던 식민지의 애가(哀歌)이며 토속의 노래는 이러한 지구(地區)에 가라앉아간다.

- 「장미의 온도」(『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서문) 부분



박인환은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심각한 해방기의 정국을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으로 인해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에 “증오와 안개가 낀 현실”로 간파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노래하였던 식민지의 애가이며 토속의 노래”를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에 따른 주권 상실의 슬픔을 토로한 시들은 감상적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을 외면한 순수 서정시들을 현실 도피적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새로운 극복 방안으로 “시민 정신”을 제시한 것이다. 박인환이 1949년 7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일이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월남, 홍콩, 투르키스탄 등 오랫동안 식민지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가진 것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재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힘 있는 대로 영웅되어 싸워라  
자유와 자기 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야욕과 폭압과 비민주적인  
식민 정책을  
지구에서 부숴내기 위해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

-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부분)

결국 300년 동안 강대국들로부터 온갖 강탈과 착취를 받아 온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상황을 조선의 형편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박인환은 시민정신을 토대로 삼고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며 민족해방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그의 한계라기보다 시대의 한계였다. 한 개인으로서는 어찌해볼 수 없는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발표한 산문 중에서 「아메리카 영화 시론」(신천지, 1948. 1.), 「전후 마영의 인기 배우들」(민성, 1949. 11.), 「미·영·불에 있어 영화된 문예작품」(민성, 1950. 2.)은 영화의 특성을 논한 것으로 그의 해박함이 여실히 보인다.



박인환은 한국전쟁 기간(1950. 6~1953. 7)에 산문 15편과 시 9편 등 총 24편의 글을 발표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작품 수이다. 육군 소속 중군 작가단에 가입해 전쟁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작품을 발표한 시기는 1952년이 가장 많으며, 주요 발표 지면은 『경향신문』과 공군정훈부에서 발간한 『창궁』이었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처럼 전쟁의 체험을 담았다.

“새벽에 돌아가는 길 나는 내 친우가/전사한 통지를 받았다.”(『무도회』, 『경향신문』, 1951. 11. 20.)

“동란을 겪은 인간처럼 온 손가락을 피로 물들이어”(『종말』, 『신경향』, 1952. 1.)

“향기 짙은 젓가슴을/총알로 구멍 내고”(『미래의 창부』, 『주간국제』, 1952. 7. 15.)

“군인이 피워 물던/물부리와 검은 연기의 인상과”(『회상의 긴 계곡』, 『경향신문』, 1951. 6. 2.)

“적을 쏘라/침략자 공산군을 사격해라.”(『신호탄』, 『창궁』, 1952. 6.)

“군대는 북으로 북으로 갔다.”(『서부전선에서』, 『창궁』, 1952. 6.)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여러 차례의 살육에 복종한 생명보다도/더한 복수와 고독을 아는/고뇌와 저항일지도 모른다.”(『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발표한 산문은 「서울 돌입」(『경향신문』, 1951. 2. 12.), 「서울 탈환 명령을 고대 6185부대 한강 연대기」(『경향신문』, 1951. 2. 18.), 「짓밟힌 ‘민족 마음의 고향 서울’ 수도 재탈환에 총력기하자!」(『경향신문』, 1951. 2. 20.), 「장비 없이 출전한 오랑캐 ‘수류탄’에 붉은 쌀가루뿐」(『경향신문』, 1951. 2. 21.), 「중공군 서울 퇴각?」(『경향신문』, 1951. 2. 21.), 「대구고등군법회의, 거창사건 피고인들 연도 공판 진행」(『경향신문』, 1951. 12. 18.),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신태양』, 1952. 11.) 등에서 보듯이 전쟁 상황을 알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주간국제』, 1952. 6. 6.)은 ‘후반기’ 동인에 대한 특집으로 게재된 것으로 모더니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박인환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 타계할 때까지 시 54편, 산문 44편으로 총 98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1955년 10월 15일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된 『선시집』을 발간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박인환의 유일한 시집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세계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1956년 1월 27일 첫 시집 『선시집』 출판기념회에서 부인 이정숙과 함께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 『선시집』 후기 부분

한국전쟁은 박인환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해방기의 혼란한 상황을 경험한 그였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그렇지만 박인환은 전쟁의 충격에 함몰되지 않고 시인다운 세계인식을 가지려고 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라는 의식으로 휴머니즘을 추구한 것이다.

전쟁 때문에 나의 재산과 친구가 떠났다.  
인간의 이치를 위한 서적 그것은 잿더미가 되고  
지난날의 영광도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다정했던 천우도 서로 갈라지고

간혹 이름을 불러도 울림조차 없다.  
오늘도 비행기의 폭음이 귀에 잡겨  
잠이 오지 않는다.

-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부분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 친구들을 잃었다. 재산도 서적도 즐거웠던 날들도 잃었다. 사라져간 그 인연들을 불러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박인환은 그들을 그리워 했다.

이 시기의 활동 중에서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면은 미국 여행을 다녀온 일이다. 1955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다녀왔는데, 5월 13일과 17일 『조선일보』에 「19일간의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여행의 내용을 소개했고, 『선시집』에 ‘아메리카 시초’라는 묶음으로 총 11편을 수록한 것을 보면, 그에게 미국 여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30세의 나이에 화물선을 타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 나라로/여행의 길을 떠났다./수중엔 돈도 없이/집엔 쌀도 없는 시인이/누구의 속임인가”(「여행」)라고 토로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우연적인 감행이었지만, 조국의 상황을 더 잘 인식한 기회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전사한 중위의 어머니는  
이제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라고 내 손을 잡고  
시애틀 시가를 구경시킨다.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울어야 하는  
아메리카의 하늘에 흰구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어느 날」 부분

박인환은 여행하는 동안에도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조국의 상황을 잊지 못했다. “그렇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태평양에서」)처럼 자기반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울어야 하는” 처지를 회피하지 않고 껴안았다. 그리하여 “서울로 빨리 가고 싶다”(「어느 날의 시가 되지 않는 시」)라고 귀국에 대한 절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박인환은 또한 영화평론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휴전협정이 타결되자 서울로 올라와 김규동, 이봉래, 이진섭, 오종식, 허백년, 유두연 등과 영화평론가협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발표한 글은 아래와 같다.

- 1) 「자기 상실의 시대」(『경향신문』, 1953. 11. 29.)
- 2) 「제니의 초상」감상(『태양신문』, 1954. 1. 9.)
- 3) 「한국 영화의 현재와 장래」(『신천지』, 1954. 5.)
- 4) 「한국 영화의 전환기」(『경향신문』, 1954. 5. 2.)
- 5) 「영화감상 독본(讀本)- 영국영화」(『현대여성』, 1954. 8.)
- 6) 「물랑루즈」(『신영화』, 1954. 11.)
- 7) 「챔피언」(『영화세계』, 1954. 12.)
- 8) 「외화 본수를 제한」(『경향신문』, 1955. 1. 23.)
- 9) 「최근의 외국영화 수준」(『영화세계』, 1955. 3.)
- 10) 「시네마스코프의 문제」(『조선일보』, 1955. 7. 24.)
- 11) 「산고 중의 한국 영화들」(『신태양』, 1955. 9.)
- 12) 「회상의 명화선(選)」(『아리랑』, 1955. 9.)
- 13) 「서구와 미국 영화」(『조선일보』, 1955. 10. 9/11.)
- 14) 「회상의 명화선(選)」(『아리랑』, 1956. 3.)

이 중에서도 「한국 영화의 현재와 장래」는 국산 영화에 대한 입장료 무세(無稅) 조치로 말미암아 곤란에 처한 있는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제작자 문제, 감독 문제, 시나리오 문제, 배우 문제 등을 예리하게 논하고 있다. 「회상의 명화선」은 명작 영화를 선정해 소개한 글이다.

박인환은 1956년 3월 20일 귀가한 뒤 오후 9시쯤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농부의 아들과 같이 선풍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상실감과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운명을 다한 것이다.

박인환의 사후에 발표된 작품은 시 13편, 산문 21편으로 총 34편이다. 시작품 중에서 「세월이 가면」은 대중가요의 노랫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문은 「이태리 영화와 여배우」(『여원』, 1956. 6.), 「회상의 명화선(選)」(『아리랑』, 1956. 7.), 「절박한 인간의 매력」(『세월이 가면』, 1982) 등 영화와 관련된 글이 많다.



사후 20주기가 되는 1976년 맏아들 세형(世馨)에 의해 시집 『목마와 숙녀』(근역서재)가 간행되었다. 사후 26주기에는 김광균, 김규동, 김경린 등에 의한 추모 문집인 『세월이 가면』(근역서재)이 간행되었다. 함께 활동했던 문우들의 회고담을 통해 가난하면서도 신의를 중시했고, 책을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고,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고, 호오가 분명했고 등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인 이정숙 여사와 이봉구 소설가에게 쓴 13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 박인환의 다정다감한 면모도 보여준다.

사후 30주기에는 『박인환 전집』(문학세계사)이 간행되었다. ‘전집’이라는 제명을 처음으로 달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9주기에는 『한국대표시인 101인선집-박인환』(문학사상사)이 간행되었다. 이 시집에는 2편의 시를 발굴해 수록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출판사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해당 작품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기(旗)를 쫓고 산들, 무얼 하나  
꽃이 내가 아니듯  
내가 꽃이 될 수 없는 지금  
물빛 몸매를 감은  
한 마리 외로운 학(鶴)으로 산들 무얼 하나  
사랑하기 이전부터  
기다림을 배워버린 습성으로 인해  
온 밤 내 비가 내리고 이젠 내 얼굴에도  
강물이 흐르는데……  
가슴에 돌단을 쌓고  
손 흔들던 기억보다 간절한 것은  
보고 싶다는, 보고 싶다는 단 한마디  
먼지 나는 골목을 돌아서다가  
언뜻 만나서 스쳐간 바람처럼  
쉽게 헤어져버린 얼굴이 아닌 다음에야……  
신기루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늘을 돌아 떨어진 별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얼굴」 전문

눈물처럼 똑똑 낙엽 지는 밤이면

당신의 그림자를 밟고 넘어진

외로운 내 마음을 잡아보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이별을 견뎠습니다.

맺지 못할 이 이별 또한 운명이라며

다시는 울지 말자 다짐했지만

맨 정신으로 잊지 못해

술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버린 당신이 뭘 알아

밤마다 내가 마시는 건

술이 아니라

술보다 더 독한 눈물이었다는 것과

결국 내가 취해 쓰러진 건

죽음보다 더 깊은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 「술보다 독(毒)한 눈물」 전문

사후 50주기에는 문승묵이 엮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박인환 전집』(예옥) 및 맹문재가 엮은 『박인환 깊이 읽기』(서정시학)가 간행되었다. 문승묵이 엮은 전집은 이전까지 간행된 박인환 작품집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전집다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맹문재가 엮은 연구서는 박인환의 작품 세계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후 52주기에 맹문재 엮은 『박인환 전집』(실천문학사)이 간행되었다. (맹문재 엮음,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8)

## 박인환의 대중화, 김수영과 비교



2008년 여름에는 김수영 시인의 타계 40주기를 추모하느라 문예지들과 신문들이 바빴다. 『창작과 비평』은 시인의 미발표작 15편과 일기를 공개했고, 『문학동네』는 시인의 부인인 김현경 여사와의 대담을 실었다. ‘민음사’는 그가 타계한 이후에 출생한 시인들의 작품을 묶고 시낭송을 가졌으며, 추모사업 준비위원회는 학술 세미나를 가졌다. 신문들도 추모하는 기사와 김현경 여사와의 대담을 실었다. 다음은 6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현경 여사의 인터뷰 중 일부분이다.

김수영이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시인 박인환을 질투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씨는 “질투한 것이 아니라 경멸했다”고 말했다. “멋만 부릴 줄 알지 시를 쓸 줄 모른다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 김 여사가 처음 꺼낸 것이 아니라 김수영이 이미 했던 것이다. “나는 인환을 가장 경멸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것처럼 재주가 없고 것처럼 시인으로서



의 소양이 없고 것처럼 경박하고 것처럼 값싼 유행의 숭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담으로 여겨져야 할 이와 같은 말이 박인환의 작품세계를 평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김수영은 한국 시단의 거장으로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후학들은 박인환을 시를 쓸 줄 모르는 시인으로 간주하고 그의 시세계를 무시해오고 있는 것이다.

진정 박인환은 시를 쓸 줄 모르는 시인인가? 이 문제에 앞서 과연 어떤 근거로 박인환과 김수영을 비교하고 있는가? 또한 비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박인환의 작품 세계를 폄하하고 있다. 박인환과 김수영은 조건 없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4·19혁명을 겪지 못한 박인환과 겪은 김수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김수영은 4·19혁명을 계기로 기존의 시세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큰 성취를 거두었는데 비해 박인환은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두 시인의 시세계를 놓고 우열을 가리는 일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도 계속 비교되고 있기에 두 시인의 면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본다.

### 〈박인환과 김수영의 면모비교〉

사 항	박인환	김수영
출생일	1926. 8. 15	1921. 11. 27
출생지	강원도 인제군. 서울서 성장	서울시 종로구
학 력	경기중학교 중퇴. 명신중학교 졸업. 평양의 학전문학교 중퇴.	선린상업학교 졸업. 동경 성북고등예비학교 중퇴. 연희전문학교 중퇴.
등단 상황	1946년 『국제신보』에 「거리」 발표	1945년 『예술부락』에 「묘정의 노래」 발표
동인 활동	『신시론』(1948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1949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1949년)
시작품 수	81편(1956년 타계까지 71편)	276편(1956년 박인환 타계까지 50편)
사망일	1956년 3월 20일(31세)	1968년 6월 16일(48세)

이상의 면모를 보면 박인환이 김수영에 비해 시를 쓸 줄 모른다는 식으로 폄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박인환은 1956년 31세로 요절할 때까지 총 71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비해 김수영은 50편을 발표했다. 박인환이 보다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발표한 매체 상황을 비교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김수영전집』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쉽다. 박인환은 김수영에 비해 다섯 살이나 적은 나이인데다가 한 해 늦게 문단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작품을 썼다. 낯지 않은 시어로서 작품을 쓰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하다못해 한국 사회에서 암적인 폭력으로 존재하는 학력에 있어서도 열등하지 않다.

이렇듯 박인환은 김수영에 비해 처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폄하되고 있는 것은 김수영의 편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박인환의 작품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박인환과 김수영은 조건 없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김수영은 박인환보다 17년이나 더 생존했고,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4·19혁명을 겪은 뒤 작품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박인환과 절대적인 조건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물론 박인환이 타계하기까지 발표한 작품을 놓고 비교할 수는 있지만,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인환은 동시대의 그 어떤 시인보다도 열정적으로 시를 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를 쓸 줄 알았던 것이다.

한국 시문학사에서 박인환의 시세계는 모더니즘으로 규정되고 있다.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평가는 박인환이 실제 모더니즘 운동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쓴 것이 사실이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박인환의 시세계를 모더니즘으로 국한시킨 것은 그의 시 본령을 제한 내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실 참여 인식이 없는 명동의 댄디보이즘 되는 시인으로, 전통을 내세우는 순수문학의 입장에서든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시인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수영을 모더니즘 시인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리얼리즘 시인으로든 조명함으로써, 다시 말해 시세계의 범주를 넓힘으로써, 뛰어난 시를 쓴 시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점과 대조적이다.

박인환의 시세계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해방 공간기에는 진정한 민족 해방과 민족 국가 건설에 관심을 가졌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허무감을 노래했다. 박인환은 1946년 등단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시 12편, 한국전쟁 동안 시 7편, 한국전쟁 이후 시 54편





등을 발표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발표한 작품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박인환의 지배적인 시세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인환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보인 활동은 ① 1948년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임호권과 함께 『신시론』 발간, ② 1949년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과 함께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발간, ③ 1949년 김경린, 이한직, 조향, 김차영, 이상로, 김규동, 이봉래 등과 함께 ‘후반기(後半紀)’ 동인 결성 등이다. 박인환이 모더니즘 운동을 열성적으로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인환의 사후 26주기를 맞이하여 함께 활동했던 시인들이 엮은 추모 문집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김형, 우리 멋있는 현대시 운동을 하여 봅시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운동 말입니다.” 급기야는 이러한 제안도 서슴없이 톤(tone)을 높여 가며 재촉하다시피 하는 인환이었다.

그는 다른 선배 모더니스트들, 이를테면 김기림, 이상, 김광균 등처럼 단순한 개인 활동 아닌 예술훈의 기수로서 장차 우리 시사에 특징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노력이었다. (중략) 새로운 낱말, 어떤 이미지의 새로운 효과에 매우 민감했고, 그런 것들을 포착하면 꼭 작품에 옮기려고 했다. 이런 뜻에서 누구보다도 실험적인 시인이었고

오든과 스펀더를 마치 종주(宗主)처럼 늘 들먹거리던 시인 인환, 그리고 해방 후 젊은 시인들 속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에 나선 시인 인환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를 눈부시게 장식한 모더니즘 시인 박인환은 기성 질서에 대한 대담한 반역과 기성 창조예의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이룩한 가장 용감하고, 유능한 시인의 한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인환의 집 방에서 동인회의 명칭이 거론되었는데, 인환이 ‘후반기’가 어떠냐고 내놓았는데, ‘20세기 후반’이라는 뜻이었다. 모두 찬성했으며, 편집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하기로 결정을 본 다음, 창간호 편집은 인환이 맡기로 했다.

위와 같은 진술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인환이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해 나갔음을, 모더니즘 운동을 통해 해방공간의 신세대 시인들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박인환은 음풍농월을 앞세우고 시단의 주류라고 자처하는 인습적인 서정주의 문학과 감상성에 젖어 있는 문학을 현대적인 미학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박인환의 모더니즘 운동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와 같은 면은 “인환만은 완강히 해체론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방에서 나오면서 “나 혼자 서라도 해나가겠다.”고 ‘후반기’ 사수론으로 버티자, 온달다방 처마 밑 한길 가에서 봉래가 인환의 먹살을 잡는 소동까지 일어났었다. 모두 뜯어 말려서 간신히 봉래의 다혈질을 가라앉히긴 했으나, 씹쓸한 뒷맛을 남긴 채, 그 시각 이후 ‘후반기’는 없어져버린 것이다.”라는 증언에서 확인된다.

그렇다고 박인환이 창작하는 자세에서 모더니즘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박인환의 시작품을 두고 모더니즘 작품이나 아니냐의 논란은 모더니즘의 기원을 혹은 모더니즘의 본래적 특성을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인환의 모더니즘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등의 아방가르드적 유파에서 보인 서구의 모더니즘이 기존의 사회 체제나 종교나 윤리 등에 회의를 품고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과 배경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세계인식은 상통하기 때문이다. 박인환의 모더니즘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회의와 현대 문명에 대한 불안을 바탕으로 한 전통의 단절, 주관적 경험, 문학의 독자성 등을 추구한 서구 모더니즘의 정신을 계승하여 종래의 주정적 감상주의 문학 또는 전통의 답습에 빠진 순수문학을 주지적인 인식으로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 형식이나 관습을 극복하려고 나선 박인환의 모더니즘 인식은 서구의 모더니즘 정신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박인환의 모더니즘이 서구의 모더니즘에 비해 철학적 깊이가 얕거나 문학적 성취가 작다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박인환의 모더니즘은 서구와는 다른 시대와 사회를 반영했을 뿐이다.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1) 「인천항」(신조선, 1947. 4)
- 2) 「남풍」(신천지, 1947. 7)
- 3) 「사랑의 Parabola」(새한민보, 1947. 10)
- 4)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세계일보, 1948. 1. 1)
- 5)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신천지, 1948. 5)
- 6) 「지하실」(민성, 1948. 3)



- 7) 「고리키의 달밤」(신시론, 1948. 4)
- 8) 「언덕」(자유신문, 1948. 11. 25)
- 9) 「전원시초」(부인, 1948. 12. 15)
- 10) 「열차」(개벽, 1949. 3)
- 11) 「정신의 행방을 찾아」(민성, 1949. 3)
- 12) 「1950년의 만가」(경향신문, 1950. 5. 16)

위에서 보듯이 박인환은 한국전쟁 이전에 총 12편의 시를 발표했다. 작품들 중에서 「인천항」, 「남풍」,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고리키의 달밤」, 「정신의 행방을 찾아」는 지극히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항」은 “조선의 해항 인천의 부두가/중일전쟁 때 일본이 지배했던/상해의 밤을 소리 없이 닮아간다”라는 결구에서 보듯이 또다시 식민지가 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조국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남풍」은 “아세아 모든 위도/잠든 사람이여/귀를 기울여라”라는 결구에서 보듯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위축되어 있는 아시아의 민중들을 일깨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는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식민지 국가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고리키의 달밤」은 표현이 다소 낯설지만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추구한 레닌의 사상을 노래하고 있다. 「정신의 행방을 찾아」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스탄을 우리 조상들의 근대정신이 발흥된 곳으로 보고 평화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밖에 「사랑의 Parabola」,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 「언덕」, 「전원시초」, 「1950년의 만가」 등은 서정시이다. 「사랑의 Parabola」는 사랑의 포물선을 그린 한 편의 서정시이다.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은 “가난을 등지고 노래도 앓은/안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서정성이 주조를 이룬다. 「언덕」은 어린 날 연을 날리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동시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원시초」는 개인 시집인 『선시집』에서 「전원」으로 제목을 바꾼 작품인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한 편의 서정시이다. 「1950년의 만가」는 “아름다운 연대를 회상하면서/나는 하나의 모멸의 개념처럼 죽어간다”고 노래한 모습에서 보듯이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고 있다.

한편 「지하실」과 「열차」는 모더니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하실」은 “황갈색 계단을 내려와/모인 사람은/도시의 지평에서 싸우고 있다”에서 보듯이 새로운 세계인식과 표현

력을 보여준다. 「열차」는 1930년대에 활동한 영국의 시인으로 새로운 시를 이끈 스펀더(Stephen Spender)에 영향 받은 작품으로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관습과/봉건의 터널 특권의 장막을 뚫”는 열차의 모습을 낯설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인환이 한국전쟁 이전에 발표한 12편의 작품 중에서 모더니즘의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작품은 「지하실」, 「열차」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극히 서정적이거나 현실 참여적이다. 특히 열정적으로 모더니즘 운동을 한 산물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남풍」, 「인천항」,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등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수록한 점은 주목된다.

박인환은 왜 이와 같은 시를 쓴 것일까? 『신시론』을 연구한 엄동섭의 견해에 따르면, 김경린이 현대 문명에 경도되어 언어의 구상성을 지향한 반면 김경희, 김병욱, 박인환, 임호권 등은 민족이 당면한 현실을 중시하여 언어의 현실성을 추구하려는 면이 강했다. 따라서 동인들 사이에서 사상이 불일치해 김경린과 김병욱은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김병욱은 김경희와 함께 탈퇴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박인환이 왜 동반 탈퇴를 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박인환은 그 나름대로 모더니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성을 추구한 1920~30년대 서구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자신의 모더니즘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더니즘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성을 상실한 20세기 후반의 것이지만, 본래의 모더니즘은 비판정신이 강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모더니즘 성격을 1940년대 후반에 활동한 박인환의 작품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박인환이 한국전쟁 이전에 추구한 시세계는 모더니즘 인식으로써 민족 해방을 지향한 것이었다.

박인환의 모더니즘 인식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지속되어 적극적으로 현실을 담아내었다. 해방기에는 진정한 민족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가져온 폭력성을 고발한 것이다. 박인환은 『선시집』 후기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듯이 한국전쟁에 큰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에 발표한 그의 작품들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뿔어간 나의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 「검은 신(神)이어」 부분

이뿐만 아니라 “학교도 군청도 내 집도/무수한 포탄의 작렬과 함께/세상엔 없다.”(「고향에 가서」)라거나, “고지 탈환전/제트기 박격포 수류탄/‘어머니’ 마지막 그가 부를 때/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한 줄기 눈물도 없이」), “새벽에 돌아가는 길 나는 내 친구가/전사한 통지를 받았다.”(「무도회」), “한국에서 전사한 중위의 어머니는/이제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라고 내 손을 잡고/시애틀 시가를 구경시킨다.”(「어느 날」), “엄마는 전쟁이 끝나면 너를 호강시킨다고 하나/언제 전쟁이 끝날 것이며/나의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행복할 것인가.”(「어린 딸에게」), “전쟁 때문에 나의 재산과 친구가 떠났다./인간의 이치를 위한 서적 그것은 잿더미가 되고/지난날의 영광도 날아가 버렸다.”(「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등 박인환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여실하게 그렸다.

전쟁은 허위의 명분을 가지고 그만한 폭력을 수반한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일체의 힘 중에서 전쟁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광범위한 폭력인 것이다. 박인환은 한국전쟁이 가져온 그 폭력성을 상실감과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고발했다. 함께 삶을 영위하던 일가친척이며 친구며 이웃이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직시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기존의 시 형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모든 이성과 논리가 살상 무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오직 삶과 죽음의 기로만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박인환은 역사가 국민을 유기한 그 폐허의 시대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모더니즘 인식으로 휴머니즘을 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목마를 탈 수밖에 없는 숙녀를 이야기하며 한 잔의 술을 마시는 시인의 모습은



경박하거나 센티멘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의 아픔에 함몰되지 않고 최대한으로 상황을 직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허물어져 상실감이며 비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시인은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시며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므로 다소 감상적인 작품의 분위기보다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져온 시대의 아픔이며 시인의 몸부림을 읽어야 한다. 결국 시인의 시세계를 현실 인식이 없는 모더니즘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인의 시작품이 대중들과 큰 공감대를 이룬 면을 인정하고 그 연대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박인환을 모더니즘 시인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리얼리즘만을 추구했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 “박인환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서정 시인임에 틀림없다. (중략) 회복할 수 없이 된 파멸과 절망을 그는 무엇보다 서러워하는— 착하게, 아름답게 남들과 나란히 살고 싶은 인간이었다.” 박인환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으로 분리하거나 가둘 수 없는 그 이상의 시세계를 성취했다. 동시대의 시인들 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중들의 상실감과 비애감을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맹문재, 『만인보의 시학』, 푸른사상, 2011)





## 대표 시 읽기

### 남 풍

거북이처럼 괴로운 세월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일찍이 의복을 빼앗긴 토민(土民)  
태양 없는 마레—  
너의 사랑이 백인의 고무원(園)에서  
소형(素馨)처럼 곱게 시들어졌다

민족의 운명이  
크메르 신의 영광과 함께 사는  
앙코르 와트의 나라  
월남 인민군  
멀리 이 땅에도 들려오는  
너희들의 항쟁의 총소리

가슴 부서질 듯 남풍이 분다  
계절이 바뀌면 태풍은 온다

아세아 모든 위도(緯度)  
잠든 사람이여  
귀를 기울여라

눈을 뜨면  
남방(南方)의 향기가  
가난한 가슴팍으로 스며든다

## 검은 신(神)이여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뺏어간 나의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  
건물과 창백한 묘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하루의 1년의 전쟁의 처참한 추억은  
검은 신이여  
그것은 당신의 주제일 것입니다.

##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 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패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귤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 검은 강

신이란 이름으로서  
우리는 최종의 노정을 찾아보았다.

어느 날 역전에서 들려오는  
군대의 합창을 귀에 받으며  
우리는 죽으러 가는 자와는  
반대 방향의 열차에 앉아  
정욕처럼 피폐한 소설에 눈을 흘겼다.

지금 바람처럼 교차하는 지대  
거기엔 일체의 불순한 욕망이 반사되고  
농부의 아들은 표정도 없이  
폭음과 초연(硝煙)이 가득 찬  
생과 사의 경지에 떠난다.

달은 정막보다도 더욱 처량하다.  
멀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  
인간의 피로 이론  
자유의 성채(城砦)  
그것은 우리와 같이 퇴각하는 자와는 관련이 없었다.

신이란 이름으로서  
우리는 저 달 속에  
암담한 검은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 열 차

궤도 위에 철(鐵)의 풍경을 질주하면서  
그는 야생(野生)한 신시대의 행복을 전개한다—스티븐 스펀더

폭풍이 머문 정거장 거기가 출발점  
정육과 새로운 의욕 아래  
열차는 움직인다  
격동의 시간  
꽃의 질서를 버리고  
공규(空閨)한 나의 운명처럼  
열차는 떠난다  
검은 기억은 전원(田園)에 흘러가고  
속력은 서슴없이 죽음의 경사(傾斜)를 지난다

청춘의 북받침을  
나의 시야에 던진 채  
미래에의 외접선(外接線)을 눈부시게 그으며  
배경은 핑크빛 향기로운 대화  
깨진 유리창 밖 황폐한 도시의 잡음을 차고  
울동하는 풍경으로  
활주하는 열차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관습과  
봉건의 터널 특권의 장막을 뚫고  
피비린 언덕 너머 곧

광선의 진로를 따른다  
다음 햇빛은 수목(樹木)의 집단 바람의 호흡을 안고  
눈이 타오르는 처음의 녹지대  
거기엔 우리들의 황홀한 영원의 거리가 있고  
밤이면 열차가 지나온  
커다란 고난과 노동의 불이 빛난다  
해성보다도  
아름다운 새날보담도 밝게

##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맹문재



## 약력

- 시집으로 『먼 길을 움직인다』, 『물고기에게 배우다』, 『책이 무거운 이유』, 『사과를 내밀다』, 『기론 어린 양들』
- 시론 및 비평집으로 『한국 민중시 문학사』, 『패스카드 시대의 휴머니즘 시』, 『지식인 시의 대상애』, 『현대시의 성숙과 지향』, 『시학의 변주』, 『만인보의 시학』, 『여성시의 대문자』, 『여성성의 시론』, 『시와 정치』
- 편저로 『박인환 전집』, 『김명순 전집』, 『김남주 산문 전집』, 『박인환 깊이 읽기』, 『김 규동 깊이 읽기』, 『이기형 대표시 선집』(임헌영 공편), 『즐거운 광장』(백무산 공편)
- 대담집으로 『행복한 시인 읽기』, 『순명의 시인들』
- 전국 노동자문화회 매체인 『삶글』을 비롯해 『시작』, 『부천작가』, 『삶과 문학』, 『푸른사상』 등의 창간 및 주간을 맡았다.
- 전태일문학상, 윤상원문학상, 고산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안양대 국문과 교수이다.

##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http://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 2019 서울 문학 기행

---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http://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